



다섯번째 이야기

그림을 그리는 마음

[산양 에세이②]



A pottery, 2022,
아크릴, 양영희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딤후2:20-21).”



미국으로 이사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 3개월을 휴스턴에 살고, 뉴욕으로 이사해서 1년을 살고, 다시 휴스턴으로 이사하고 또 작년에 주텍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야 붓을 잡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 미술은 거의 나의 인생과 함께했습니다. 화가이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그림을 접하고 미술을 전공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부터는 전시뿐 아니라 강의에

나카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머니와 전공이 겹치는 것이 싫어서 조소를 전공한지라 그림은 많이 그리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붓을 잡으니 새롭고 즐겁습니다.

30세가 넘어서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그 후로도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그린 작품의 주제는 ‘그릇’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 서였나 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빚어 주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늘 깨끗이 두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픈 제 생각에 그릇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풍경화도 그리고 있습니다.



풍경1,2, 2022, 아크릴, 양영희

아직 저에겐 그려야 할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고,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글쓴이 양영희 집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인 그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016년 FTS를 수료하고 '라구' 시리즈 2-8권의 그림을 그렸으며, 해마다 BEE 소식지 'BEE 오는 수요일' 표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미술학 박사로 11회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 중이다. 19년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2017년 가족과 함께 도미, 현재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남편(오정민)과 아들(오승헌)과 함께 거주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위드 코로나와 방역지침에 따른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BEE 가족을 안아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림 속 His-story



벨사살 왕의 연회

(1635, 167x209 캔버스 유채, 런던 내셔널 갤러리)

렘브란트가 30대 초반 가장 행복한 시기에 그린 그림으로 배경은 다니엘서 5장이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교만은 예루살렘에서 악랄한 성전 기물을 자신의 연회에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새겨진 글자는 히브리어 “메네 메네 데겔 우파르신”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쓰는 히브리어를 위에서 아래로 적어 놓았다. “세고 세고 달아보아 나누게 된다”라는 의미로 그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 벽에 손이 나타나 글자를 쓰는 모습에 놀라는 벨사살 왕과 상황의 세세한 묘사는 교만한 자를 조롱하는 듯하다.